

색과 빛, 시각의 근원 탐구한 사상의 스펙트럼

고전 사상가들의 색채론

장영란 | 한국외국어대·경희대 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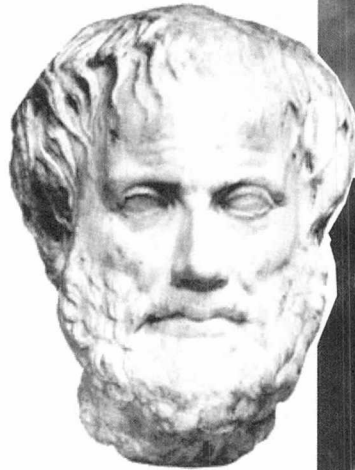
만약 이 세상에 '색'이 없다면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을까? 우리가 '처음부터' 전혀 아무 것도 볼 수 없었던 존재였다면 우리 삶의 방식도 완전히 달라졌을 것이다. 왜 색이 중요한가? 어떤 색이 전혀 없다면 우리는 아무 것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흔히 우리는 색이 없는 세계를 음산하고 암울한 무채색으로 상상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으로 색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아무 색도 없는 세계란 어떻게 말할 수 있는가? 그것은 아무 것도 존재하지 않는 세계와 비슷하다. 아무 것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색의 근원 밝히려 한 고전사상가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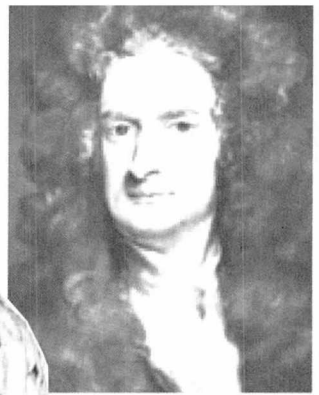
이 세계에 처음부터 색이 없었다면 인류는 최소한 현재보다 더 오랜 세월을 암흑과 무지에 빠져 있었을 것이다. 우리는 이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색을 통해 볼 수 있으며 색은 우리의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전제조건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색이란 무엇인가? 과연 색이란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인가? 물론 그렇지 않다. 그것은 우리에게 빛을 통해 다가온다. 만약 빛이 없다면 색은 지각되지 않는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색을 시각의 고유한 대상으로 파악하고 있다. 색은 현실대로 '투명한 것'을 움직이게 하는 기능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빛이 없으면 볼 수 없으며, 빛 속에서만 볼 수 있다고 한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새삼스러운 말은 아니다. 우리가 보는 색들은 외부 세계로부터 우리 눈에 들어오는 빛에 의존해 있다.

그런데 도대체 색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흔히 우리는 색이 우리가 바라보는 대상 속에 있다고 생각한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피타고라스는 색은 물체의 표면이라고 했으며, 아리스토텔레스도 색은 시각 대상의 표면에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실제로 색이 어디에 존재하는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분명하지 않다. 근대 경험론자인 로크는 색이 우리 눈에 들어오는 미세한 입자들의 작용을 통해 생겨나게 하는 힘이라 하며, 비록 우리 안에서 색이 만들어지기는 하지만 대상으로부터 오는 힘에 의해 만들어진다고 한다. 그러나 데카르트는 로크를 비판하며 좀더 분명하게 색은 우리의 마음에 의해 생겨난다고 한다. 따라서 색은 대상 혹은 물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하게 한다.



색은 우리의 인식을 가능케 한 전제조건이다. 사진은 색채론의 대가들인 아리스토텔레스, 뉴턴, 괴테(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광학적 현상으로 색을 분석한 물리학자들

현대에 들어 뉴턴을 비롯한 물리학자들은 색 자체를 약간 다른 방식으로 설명한다. 그들은 색을 광학적 현상으로 분석한다. 즉, 색 자체는 빛이라는 것이다. 시각을 통해 사물을 지각할 수 있는 것은 빛이 있기 때문이고, 또 빛이 있기 때문에 색을 지각할 수 있다. 따라서 물체 그 자체에 색이 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물체에 빛을 비쳤을 때 일부는 흡수되고 남은 빛이 반사되기 때문에 반사되는 빛의 성분에 따라 물체가 색을 지니게 되는 현상일 뿐이다.

뉴턴은 《광학》에서 빛이 크기에 따라 프리즘에 의해 굴절되는 미립자들로 이뤄진다고 믿었다. 그는 암실에서 좁은 틈으로 태양 광선을 통과시켜 생겨난 가느다란 광선을 프리즘에 비춰 7가지색으로 분해된다는 사실을 실험 결과를 통해 알게 됐다. 그러나 뉴턴의 주장이 괴테에 의해 맹렬하게 비판받았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괴테는 《색채 이론》에서 뉴턴이 암실에서 좁은 틈으로 새어나오는 빛으로 실험한 방식을 비판하며, 자연광 상태에서 보이는 6가지색만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괴테의 색상환은 노랑과 파랑, 주황과 보라, 빨강과 초록이라는 색채쌍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물론 기본 색상의 수에 관한 이론은 나중에 맥스웰(Maxwell)과 먼셀(Munsell) 및 오스트왈드(Ostwald) 등에 의해 정교화되면서 빨강, 초록, 파랑으로 확립됐다. ■

장영란씨는 현재 한국외국어대과 경희대에서 철학을 강의하고 있다. 저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인식론》 《신화 속의 여성, 여성 속의 신화》, 역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의 이해》 등이 있다.